

- 주요 뉴스: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 66.8로 10년만 최저
 - 백악관, 오는 15일 美中 화상 정상회담 개최 공식 확인
 -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법안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
 - 호주 총리, RBA가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라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지속
주가 상승[+0.7%],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 500 지수는 인플레 우려 불구 기술주가 상승을 견인
유로 Stoxx 600 지수는 실적호조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최근 가파른 강세에 따른 숨고르기로 소폭 하락
유로화 가치는 0.1% 하락, 엔화 가치는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상승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 감소로 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81.1원, +1.5원) 0.03% 상승, 한국 CDS 보합

		11/12일	11/11일	전일대비			11/12일	11/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82.9	4,649.3	0.72%	국채 금리 10y	미국	1.56%	휴장	1bp
	유럽	486.75	485.29	0.30%		독일	-0.26%	-0.23%	-3bp
	중국	3,539.1	3,532.8	0.18%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610	29,278	1.13%		중국	52bp	54bp	-2bp
	한국	2,968.8	2,924.9	1.50%	위험 지표	EMBI+	-	-	-
환율	달러지수	95.12	95.18	-0.06%		VIX	16.29	17.66	-7.76%
	유로화	1.1445	1.1451	-0.05%		WTI유	80.79	81.59	-0.98%
	엔화	113.89	114.06	0.15%	원자재	구리	444.95	439.95	1.14%
	위안화	6.3797	6.3914	0.18%		금	1,864.9	1,862.1	0.15%
	원화	1,179.6	1,180.8	0.1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 66.8로 10년만 최저

- 11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는 전월 71.7에 비해 하락한 66.8로, 예상치인 72.5를 크게 하회. 이는 '11.11월 63.7 이후 10년만의 최저치
- 라처드 커틴 미시건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아직 없다는 믿음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했다고 분석. 소비자 4명 중 1명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 수준 하락을 우려했으며, 저소득층, 고령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응답
- 최근 임금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스, 주거비용 등의 상승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가계의 절반가량은 내년에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백악관, 오는 15일 美·中 화상 정상회담 개최 공식 확인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5일 저녁에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확인. 지난 9/9일 전화통화에 이어 양측은 책임감 있게 국가간 경쟁을 관리하고 공동이익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 로이터 통신은 중국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중국정부는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고 긍정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기후 위기, 코로나19 종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 한편 양국은 12일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견제적 태도를 보이면서 내주 정상회담에서도 긴장이 이어질 전망.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경제 개방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아태지역 경제적 관여 심화를 강조

■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법안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

- 바이든 대통령은 \$5,500억 규모 인프라 예산안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 내주 행정부 내부 인물이 아닌 외부 인물을 인프라 지출을 감독할 인사로 임명할 방침

■ 뉴욕 연은 총재, 최대 고용은 인플레이션에 연동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의 이중 책무 중 하나인 최대 고용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더 보호받는 경제 부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문이 있으나 고정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더욱 취약하다고 언급

■ 필립 레인 ECB 이코노미스트, EU 재정준칙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필요

-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CB의 대칭적 2% 인플레이션 목표가 역내 지출준칙의 경기역행적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언. 인플레이션이 ECB 목표를 하회할 경우 자동적으로 재정 지출 여력을 확대하고 상회할 시 지출 여력을 축소하기 때문
- 특히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미달할 때 재정 여력이 확충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또한 수요 주도형 인플레이션과 공급 주도형 인플레이션을 분리해 준칙의 변수로 포함할 것을 제안

■ 호주 총리, RBA가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라 강조

- 호주 모리슨 총리는 미국의 물가 급등으로 내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지만 호주경제는 미국과 상이하므로 RBA가 이를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며, RBA도 팬데믹 이후의 호주경제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발언

■ 중국, 영국과 통화스왑 5년 연장에 합의

- 중국 인민은행과 영란은행은 기존의 파운드화위안화 통화스왑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 규모는 3,500억 위안으로 종전과 동일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1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66.8, 10월(71.7), 예상치(72.5)
- 미국 9월 JOLTS 구인건수(만건): 1,043.8, 8월(1,062.9), 예상치(1,030.0)
- 유로존 9월 산업생산(전월비): -0.2%, 8월(-1.6%), 예상치(-0.5%)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29, E-mail skkim@kcif.or.kr